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 1개월분 추가지원

고창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을 1개월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차이점은 12월에 1개월분 지급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400여 가구에 약 1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지원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산 과일, 채소, 육류, 우유, 잡곡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카드는 1인 가구 월 4만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관내 농협하나로마트, GS25 편의점, 농협몰(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가족센터,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 가족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도를 확장했다. 또 자녀 돌봄실을 조성하는 등 등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다.

이와 함께 교육실 사무실 상담실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이학수 시장은 "센터 환경 개선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지 바란다"며 "센터가 가족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붉은노을축제 13일 개막

3일간 변산해수욕장서 레드와인페스타·붉은노을 제즈 페스티벌·붉은노을동요제 등

유난히 붉은 노을을 자랑하는 변산해수욕장에서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번에 열리는 부안붉은노을축제에서는 레드와인페스타, 붉은노을 제즈 페스티벌, 붉은노을동요제, 스카이 갤러리 등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레드와인페스타'는 부안의 특산품인 오디와인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와인들이 즐길 수 있는 붉은노을축제 속의 또 하나의 축제로 사전구매를 통해 와인 4잔을 마실 수 있으며, 와인진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레드와인페스타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붉은노을 제즈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제즈 뮤지션들이 감미로운 선율을 맞춰 다양한 곡을 선보인다.

또한 '제1회 부안 붉은노을 어린이 동요제'도 열린다. 총 63개팀이 접수를 해 1차 동영상 심사결과 예선 진출 25개팀을 선발했다. 예선은 10월 14일에 개최되며, 15일에는 결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연사를 초

청해 낮에는 초대형 캐릭터인, 저녁에는 LED가 들어간 연 등을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스카이 갤러리'가 펼쳐지고, 부안에서 촬영한 영화 '변산'의 명장면인 남녀 주인공 박정민과 김고은이 산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장면을 모래조각으로 연출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함께 모래조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2023 부안 붉은노을축제를 준비중인 김중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은 "부안의 붉게 물든 노을을 담아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축제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 철저히 해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신규 사업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까지 점검할 것”

이학수 시장은 10일 영성리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신규 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까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0월에는 구절초꽃축제, 정읍시문화제 등 큰 가을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축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홍보에도 나서서 등 축제의 성공을 위해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정읍등 등 야외 운동시설 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은 수리

하거나 교체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며 “더불어 읍면동장들은 주민 소통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에 배치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면서 “부서장들은 신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해결하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4개 기관, 위도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박차'

부안군·부안해양경찰서·부안소방서·위도면 의용소방대 4개 기관은 10월 위도면 복지회관에서 위도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지역 구급차량 배치·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당일 부안소방서 관리전환 구급차량을 부안군으로 무상양여 및 제막식도 같이 진행하여 섬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위도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도서지역 위도면에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없어 일반차량인 승용차 화물트럭 등으로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협약기관들은 의료진과 구급차량 운영 및 이송, 운송체계 협조, 구급차량 교체 협력 등의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협약에 참여해 주신 기관들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샘고을 정읍, 샘나는 여행’

정읍시 농기센터, 농촌체험여행 ‘농뚜레일’ 기차여행 실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정읍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느끼고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농촌체험여행 농뚜레일 ‘샘고을 정읍, 샘나는 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농뚜레일 관광객 25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 ‘벚츠코페일’을 통해 모집됐다. 이들은 먼저 농촌체험농장 ‘할로에사랑’에서 알로에로 만든 웰컴티를 시음하고 알로에 보습제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구절초 꽃축제장을 방문해 꽃길을 거닐며 최고의 가을 정서를 만끽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코스로 정읍9경 중 하나인 쌍화차 거리에서 쌍화차를 맛보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여행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여행을 즐긴 한 관광객은 “여행코스 가 당일코스로 짜임새 있게 구성돼 알



차다”며 “이번 여행으로 정읍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됐다.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정기 소장은 “매력 있는 관광자원과 농촌체험상품을 연계한 농뚜레일 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농촌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논두렁, 두레, 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가 연상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11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행

고창군보건소는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75세 이상(1948년생이전)을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 및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8일부터 △65세~69세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내년 4월 말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65세이상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창군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군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23일부터는 고창군 자체사업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 군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18세이하 자녀를 둔 3차녀이상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가금류 사육농가(농장주 및 직원)를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청년벤처스 플라마켓’ 14~15일 개최

고창청년벤처스(회장 한선용) 회원들이 ‘고창청년벤처스 제3회 플라마켓’을 오는 14~15일 선운산관광단지 내 청년 1번가(아산면 선운사로 158-1)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1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올해로 3회째 추진하는 행사이다.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목적’을 컨셉으로 했다.

청년들이 직접 생산하고 청년창업가가 직접 만든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한다. 플라마켓과 함께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의류, 책, 악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행사의 수익금의 일부는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청년벤처스는 “뜨겁게 공부하고 미친 듯이 놀고 치열하게 일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진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40세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